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일곱 번째

Jeff Pippenger

2025-12-09

## 숫자 7

처음 몇 편의 기사에서 우리는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제시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는 The Desire of Ages의 한 구절을 수록했다. 포도원의 노래 비유는 또한 14만 4천이 부르는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이기도 하며, 영감은 예언에서 '노래'가 '경험'을 의미한다고 알려 준다. 14만 4천은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므로, 그들도 그리스도와 모세가 겪으신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적 역사에서 오메가요, 모세는 알파였는데, 두 분 모두 이전의 언약 백성이 제쳐지고 새로운 언약 백성이 선택되던 평행한 시대에 살았다. 14만 4천은 주께서 마지막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동안, 이전의 언약 백성이 제쳐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제시하신 것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과 부합한다. 마지막 위기에서, 예수께서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제시하신 것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표상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나, 다만 그는 요엘의 조로 부르고 있다. 포도원의 노래는 옛 언약의 백성이 이혼당하고 동시에 새 언약의 백성이 주와 혼인하게 되는 때의 노래다. 실망한 처녀들이 지체의 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혼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완전한 성취는 그들이 십사만 사천의 인침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데 있다.

요엘서의 첫 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포도원이 어떻게 파괴되었으며, 그들의 입에서 '새 포도주'가 끊겼는지를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빼앗겨 포도원의 진정한 열매를 맺을 한 무리의 소작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알리시자마자, 예수께서는 화제를 전환하여 성전에서 한쪽으로 제쳐졌지만 결국 머릿돌이 되도록 예정된 모퉁잇돌을 인용하셨다. 처음이 마지막에 되풀이될 것이었고, 이 진리가 제시될 때 그것은 '놀랍다'고 표현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첫 언급의 법칙'은 요엘이 가장 먼저 포도원의 파괴를 다루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것이 그의 증언의 주요 초점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요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대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와 잃어버린 상태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들의 증언을 시작한다.

이사야 28장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조롱하는 자들"은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과 "교만의 면류관"으로 묘사된다. "면류관"은 지도력을, "교만"은 사탄적 성품을 나타낸다.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남은 자들("나머지")과 대조된다. 이는 늦은 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것이 예표하듯 자신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의 "은혜의 왕국"은 일요일 법령 때의 "영광의 왕국"을 예표한다.

늦은 비는 9/11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십사만 사천의 인침과 산 자들의 심판도 시작되었다. 인침의 때에 성령의 부어주심이 9/11에 시작되었으며, 예수께서 몇 방울만 숨결로 내보내신 것과 같았다. 그것은 기초이고, 한밤중의 외침 때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그 정점이다. "Marvelous"는 "9/11에서 일요일 법령까지" 성령 부어주심의 기간을 상징한다.

지도력을 상징하는 '관'의 병행적이면서도 상반된 상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술 취한 자들이 제쳐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권이 남은 자에게 주어질 때를 다루는 이사야 28장의 이야기에서 제시된다. 이는 포도원 비유를 보여 준다. 술 취한 자의 관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는 관은 그때 십사만 사천이 된다. 이사야는 22장에서 셉나가 먼 나라로 내쫓기고 엘리야김으로 교체되는 일을 통해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든 22장의 셉나이든, 둘 다 하나님의 옛 언약 백성에게 있던 지도권이 제쳐지는 것을 나타낸다.

스가라는 승리의 입성, 곧 한밤중의 외침을 가리키며, 이어지는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면류관으로 묘사함으로써 이사야와 일치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소리 높여 외치라! 보라, 네게 임하시는 네 왕이 계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시리라. 내가 에브라임에서 전차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꺾으리니, 그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너 또한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네 갇힌 자들을 놓아 주었느니라.

소망을 품은 포로들아, 견고한 요새로 돌아오라. 오늘도 내가 선언하니, 내가 너희에게 갑절로 갚아 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유다를 활처럼 굽히고 에브라임으로 활을 채우며,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일으켜, 헬라야, 너의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고,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시고, 그의 화살은 번개같이 나아가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방의 회오리바람과 함께 가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물뱀들로 제압하며, 마시고 포도주로 말미암아 떠들듯 소리치고, 대접들처럼 또 제단의 모퉁이들처럼 가득하리라.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그들은 왕관의 보석들처럼 그의 땅 위에 깃발처럼 높이 들려질 것이다. 그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며 그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가! 곡식은 청년들을 즐겁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라. 스가랴 9:9-17.

11절(9/11)은 이렇게 말한다. "또 너에 관하여는,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포로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내보냈느니라." 그리스도는 한 이레 동안 많은 이들과 언약을 확증하셨고, 그 한 이레는 그의 세례로 시작되었다. 삼년 반 동안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셨으며, 그 삼년 반의 끝무렵에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승리 입성을 가리키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한밤중의 외침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로 이어지는 기간을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므로, 그 삼년 반 기간의 시작과 끝은 같다.

그리스도의 침례는 9/11을 예표하며, 9/11은 일요일 법령에서 끝나는 기간의 시작을 나타낸다. 9/11에는 늦은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일요일 법령 때에는 오순절의 큰 부으심에 앞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비 몇 방울을 미리 주신 것으로 예표된 바와 같이 한량없이 부어질 것이다.

스가랴 9장 11절은 9/11과, 또한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한밤중의 외침과도 상응한다. 9/11에, 1856년과 1888년에 그러했듯, 라오디게아 기별이 현진리로 임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늦은 비 기별이 없는 '구덩이'에 있으며, 그들의 구덩이에는 물이 없다. 라오디게아가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호소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그들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는 일요일 법령에서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전까지 그들이 '소망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또 너를 위하여,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네 포로들을 풀어 주었느니라. 소망의 포로들아, 너희는 산성으로 돌아오라. 오늘도 내가 선언하노니 내가 네게 갑절을 갚아 주리라. 스가랴 9:11, 12.

9/11은 1989년에 도래한 메시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 메시지는 셋째 천사의 메시지가지만, 밀러주의 개혁 운동의 구조와 용어로 보면 1989년은 첫째 천사의 도래를 표시했다. 첫째 천사의 메시지는 1840년 8월 11일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면서 권능을 입었고, 그것은 1989년의 셋째 천사의 도래도 이슬람에 관한 예언의 성취로 권능을 입게 될 것임을 보여 준다.

1840년 8월 11일 이슬람에 관한 예언이 입증되었을 때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했는데, 이는 9/11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는 것을 예표한 것이다. 1840년의 첫째 천사의 권능 부여와 1844년의 둘째 천사의 권능 부여는 모두 9/11에 셋째 천사가 권능을 받는 것을 예표한다. 2020년 7월 18일은 1844년 4월 19일 밀러파의 첫 실망으로 예표된 둘째 천사의 도래였다. 밀러파 역사에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권능 부여의 두 역사와 9/11에 셋째 천사의 권능 부여의 역사 역시 2023년 7월에 도착한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가 권능을 받은 일에 대한 증거가 된다.

인침의 기간은 9/11에서 시작하여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의 몇 방울을 내쉬심으로 시작하여 오순절에 불의 혀들이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끝난다. 베드로는 오순절을 요엘서의 성취로 보았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숨을 내쉬심 또한 요엘서의 성취였음을 확증한다. 이는 오순절 시기가 분명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어 알파가 또한 오메가임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보리 첫 열매 제물이 드러졌고, 50일 뒤 오순절에는 밀 첫 열매 제물이 들어 올려졌다. 9/11은 일요일 법령 직전에 임하여 그리로 이끄는 한밤중 외침을 예표한다. 스가랴 9장 9절이 나타내는 한밤중 외침의 완전한 성취는 2023년 7월 이후이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외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시느니라. 스가랴 9:9.

그러므로 스가랴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관으로 상징한 것에 동의할 뿐 아니라, “그들이 관의 보석들과 같아서 그의 땅 위에 깃발처럼 들려지리라”고 기록함으로써 그 관이 또한 깃발임을 덧붙인다. 또한 스가랴는 “곡식은 청년들을 기쁘게 하고, 새 포도주는 처녀들을 기쁘게 하리라”고 말함으로써 요엘의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상징에 결부된 기쁨을 메아리친다. 우리가 28장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기록을 살필 때, 이 장이 ‘안식과 새롭게 함’을 밝히는 성경의 장임을 주목하라. 이것은 늦은 비에 관한 성경의 주요 본문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요엘이 말하는 그 술 취한 자들과 같은 자들임에 틀림없다.

교만의 면류관이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영화로운 아름다움은 시들어 가는 꽃이며, 포도주에 제압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머리에 있다. 보라, 여호와께서 강하고 능한 자를 두셨으니, 그는 우박의 폭풍과 파괴하는 광풍 같고, 넘쳐 흐르는 강한 물의 범람 같아서 손으로 땅에 내던지리라. 교만의 면류관, 곧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머리에 있는 영화로운 아름다움은 시들어 가는 꽃 같고, 여름 전에 맺는 성급한 열매 같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보자마자 손에 들자마자 곧 먹어 치운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관이 되시고,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단의 영이 되시며, 전투를 성문까지 밀어붙이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시리라. 그러나 그들 또한 포도주로 인해 그르치고, 독주로 인해 길에서 벗어났다.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해 그르치고, 포도주에 삼켜졌으며, 독주로 인해 길을 잃었다. 그들은 환상에서 그르치고, 판결에서 비틀거린다. 모든 상이 토한 것과 더러움으로 가득하여 깨끗한 곳이 없다. ...

너희는 멈추어 놀라워하라. 외치고 또 외쳐라. 그들은 포도주로 인함이 아닌데도 취하였고, 독주로 인함이 아닌데도 비틀거리는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깊은 잠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라. 곧 선지자들,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그가 가리우셨도다.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 봉해진 책의 말과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읽을 수 없나니, 그것이 봉해졌음이라” 하고, 또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청하노니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되 “나는 배우지 못하였노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나를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참으로 놀라운 일과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의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감추어지리라. 주께 그들의 계략을 깊이 숨기려 하며, 그들의 일을 어둠 속에서 행하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의 뒤집어 놓음이 반드시 토기장의 진흙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니,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으신 이에 대하여 ‘그가 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그에게는 명철이 없었다’

하겠느냐? 이사야 28:1-8; 29:9-16.

주께서 예언의 메시지가 봉인에서 풀릴 때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데 관련된 바로 그 두 요소인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거두어 가시면서,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깨닫는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다. “놀라운 일”의 일부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봉인을 떼어 드러내신 지식을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의 마음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과 악인들을 분리하는 것도 주의 “놀라운 일”의 일부이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리스도께서 트집 잡는 유대인들을 포도원 비유로 이끄시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울무에 걸리게 하신 후, 그분은 시편 118편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니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22-24.

주께서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기이한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며, 그 일에는 그들이 진리를 알아보는 능력을 빼앗는 것이 포함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요엘의 “새 포도주”를 가진 이들의 눈에 기이하게 보인다.

술 취한 자들은 봉해진 책을 읽을 수 없다. 그것이 ‘배운 자’로 대표되는 지도층이든, ‘배우지 못한 자’로 대표되는 평신도이든 마찬가지다. 술 취한 자들이 ‘봉해진 책’으로 표현된 성경의 예언적 증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술 취한 자들은 두 번이나 ‘길에서 벗어난 자’로 규정된다. 이것은 다시 이사야 28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늦은 비’ 본문이며, 거기에서 이사야는 술 취한 자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던 ‘쉽과 새롭게 함’을 지적한다. ‘쉽과 새롭게 함’은 들을 수 있는 것이므로 메시지다.

그 취함 때문에 술 취한 자들은 예레미야가 ‘쉽’으로 표현한 늦은 비를 찾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 곧 예레미야의 ‘옛 길’에서 벗어났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늦은 비의 기별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주제이다. 그들이 그렇게 취하게 된 것은, 늦은 비의 역사인 십사만 사천의 역사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기초가 되는 역사로 돌아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취한 자들 위에 이루어지는 ‘기이한 일’은 늦은 비가 부어질 때 일어난다. 늦은 비 동안에는 시험하는 메시지가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만들어 내며, 이는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로 묘사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예언 적용을 거룩한 역사의 줄기들에 근거 두기를 거부했고, 이사야 28장의 ‘줄에 줄을’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자들은 ‘새 포도주’를 마신다. 악인들의 취함은 예언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드러나며, 그들의 눈먼 상태는 기초가 되는 옛 길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예수님은 트집 잡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며,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에 대해 읽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은 기초 혹은 모퉁잇돌이 마감석에서 재현된다는 예언적 진리를 나타낸다. 알파의 돌은 또한 오메가의 돌이다. 줄 위에 줄의 방법론(이는 늦은 비의 방법론이다)을 정립하고 지탱하는 주된 예언적 원리는 어떤 것의 시작이 그 끝을

예증한다는 것이다. 밀러주의 운동에서의 주된 예언적 원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강림했을 때 확증된 일일일년 원칙이었다. 십사만 사천의 운동에서의 주된 예언적 원리는 시작이 끝을 예증한다는 것이며,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했을 때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늦은 비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매우 자세히 설명한다. 그 사실들 가운데 하나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늦은 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며, 이는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베드로에게 암시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예표되었다. 그 방법론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복하여 '알파와 오메가'로 직접 제시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봉해져 있다. 그 방법론, 주된 예언 규칙, 그리고 늦은 비의 기별은 '기이한 역사'로 표현되는 예언적 역사선에서 성별된 주제들 가운데 일부이다.

또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였고, 그를 위하여 큰 분노로 질투하였느니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와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다시 노인과 노파가 거하리니,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으리라. 그 성의 거리는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하여 그 거리에서 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 그것이 기이하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도 그것이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동방의 땅과 서방의 땅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할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성전을 건축하려고 만군의 여호와와 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으로 이 날에 이 말을 듣는 너희여, 너희 손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 날들 이전에는 사람에게 샅도 없었고 짐승에게 샅도 없었으며, 환난 때문에 나아가는 자나 들어오는 자에게 평안이 없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을 각각 그의 이웃을 대적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에게 이전 날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나. 스가랴 8:1-11.

스가랴는 이렇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와 집의 기초가 놓이던 날, 성전이 건축되게 하려고 선지자들의 입으로 전해졌던 이 말씀을 오늘날 듣는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강하게 하는 것은 머릿돌이 되는 기초에 대한 기별이다. 그 기별은 밀러 운동의 역사가 십사만 사천의 역사 속에서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묻는다. "이 날들에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의 눈에 이것이 기이하게 여겨진다면, 내 눈에도 또한 기이하겠느냐?" 그 질문은 모든 선지자의 주제인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예언적 시기를 지목할 뿐만 아니라, 14만 4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14만 4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변하는 때도 지목한다. 그것은 그들이 인침을 받는 때와 같은 지점이며, 또한 그 운동이 전투하는 단계에서 승리하는 단계로 바뀌는 동일한 시점으로서, 성소가 참으로 정결케 됨에 따라 이 무리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사역이 마무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는 구절들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그분의 '기이한 역사'로 표상된 예언적 역사는 하나님의 눈에도 남은 자의 눈에도 기이하며, '눈과 눈을

마주함'은 연합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타난 연합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는 것을 가리키며, 그들은 죄를 범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느니 차라리 죽기를 택할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미가는 고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역사를 '놀라운 일들'이라고 부른다.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기이한 일들을 보이리라. 미가 7:15.

"놀라운 일들"은 기초가 되는 역사로서, 그 기초의 역사가 머릿돌로 대표되는 끝맺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일들"은 모퉁잇돌로 시작하여 "머릿돌"로 끝나는 역사이다. 그분의 "놀라운 일들"은 모세의 역사에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다. 모세는 모퉁잇돌이었고 그리스도는 머릿돌이었다. 예언적으로 모세는 알파요 그리스도는 오메가이다.

"성경 역사의 맨 처음인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풀어 설명하셨다." 시대의 소망, 797.

모세는 가르쳤고,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세의 말을 인용하여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이신,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여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라.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주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그분은 만물이 회복되는 때까지,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한다. 모세는 참으로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말하는 모든 것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절되리라 하였다. 또한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은 모든 선지자들, 말한 자마다 이 날들에 대하여 역시 미리 말하였다. 사도행전 3:18-24.

오순절 때 베드로가 모세에 대해 두 번째로 증언함으로써, 모세는 알파로, 그리스도는 오메가로 확립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늦은비 메시지(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제기된 논쟁)의 주요 구성 요소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예언적 원리임을 강조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 원리는 14만 4천에게 있어서, 밀러주의 역사에서의 일/년 원칙에 상응하는 대응 원리이다.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는 '기초가 머릿돌이 되는' 원리이며, '모세와 어린양'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감에 의해 포도원의 노래(이는 또한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이기도 하다)의 한 구절로 지목된다.

여러 가지 예언적 선들이 나타내는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나타내며, "놀라운 일들"이라는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인식함으로써 드러나는 빛이 라오디게아인을 빌라델비아로 변화시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한 돌이 되게 한다. 이는 주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신 1844년 10월 22일까지 46년에 걸쳐 지어진 밀러라이트 성전과 같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귀한 살아 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라.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영적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되, 보라, 내가 시온에 택하고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하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나니,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넘어지나니, 이렇게 되도록 그들도 정하여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찬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3-10.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부름이 언제 주어지는지를 밝혀 준다. 영감에 의해, 모세의 알파 역사에서의 고라의 반역과 정렬되는 1888년의 이정표를 마지막 때에 적용하면 그것은 9/11과 일치하는데, 영감에 따르면 그때는 셋째 천사와 함께 라오디게아의 기별이 도착하는 때이다. 예언 속 라오디게아인들은 "맹인"이며, 곧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에서 나오라는 부름은 1856년과 1888년, 그리고 9/11에 라오디게아의 기별이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다. 9/11에는 "어둠에서 나오라"는 부름이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빛을 이해하라는 부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될 바로 그 역사 속으로 듣는 자들을 부르시는 부름이기도 했다.

지난 30년 동안 거듭 입증되었듯, "영원한 복음"의 예언적 정의는 예언적 진리가 봉인이 풀려 드러나 그로 인해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이 시작되는 역사이며, 그 세 가지 시험에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 두 시험은 셋째 시험과 성격이 다른데, 셋째 시험은 앞선 두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보여 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복음의 또 다른 구별점은, 다음 시험에 참여하려면 현재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이한 일들'의 역사는 또한 '영원한 복음'이 절정에 이르는 역사인데, 첫째 천사가 선포하였고 영원한 복음으로 규정된 '심판의 시간'이 9/11부터 시작되어 완전한 성취에 이르기 때문이다. 밀러파에게 경고되었던 그 심판은 열 처녀 비유에서 문이 닫힌 1844년 10월 22일이었고, 이로써 열 처녀 비유에서 문이 다시 닫히게 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였다. 밀러파가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듯이, 9/11은 하나님의 집행심판의 시간이 일요일 법령 때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있다.

9/11에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은 "신들의 놀라운 일들"로,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초석으로, 그리고 "오순절의 계절"로, 그리고 "하박국 2장"으로, 그리고 "십사만 사천 명의 인침의 때"로, 그리고 "짐승의 우상 시험의 때"로, 그리고 "영원한 복음"으로, 그리고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거룩한 역사"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의 역사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침례에서 그분의 죽음에 이르는 역사"로 표현되는 기간이다.

그의 세례를 통해 프랙탈로 나타난 역사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2520일의 기간을 개시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상징했으며, 그것은 1260일의 끝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세례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9/11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가 강림하는 것을 예표했다. 예언적 1260일 후에 세례로 상징된 사건들이 십자가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세례부터 십자가까지의 역사에는 그 기간의 끝에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상징적인 알파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들은 전체 역사의 프랙탈이다. 세례부터 십자가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며, 그 역사는 또한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분의 문자적인 "죽음, 장사, 부활"로 표상되며, 그러므로 또한 "홍해에서의 고대 이스라엘의 세례"와 "노아의 역사 동안의 여덟 영혼의 세례"로도 표상된다. 이 모든 기간은 그분의 "기이한 일들"의 역사를 표상한다.

부활을 상징하는 숫자 8에 관해 말하자면, 방주에 있던 여덟 영혼이 숫자 8이 상징으로서 처음 언급된 사례였고, 최초 언급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예언적 세부 사항은 그 첫 언급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여덟 영혼은 옛 땅에서 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덟 영혼은 비가 내리던 때를 살아남았지만, 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거부한 모든 이들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거부된 경고 메시지와 달린 문, 비, 그리고 새 땅의 역사로 표상되는, 새 땅으로 가는 '8' 영혼은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의 경륜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14만 4천인 여덟 영혼을 특징짓는 경륜적 변화는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가는 전환이며, 이는 또한 알곡과 가라지로 이루어진 전투하는 교회에서, 온 세상이 보도록 깃발처럼 들어 올려지는 밀의 첫 열매 제물만으로 이루어진 승리하는 교회로 옮겨가는 전환이기도 하다. 그것은 폭풍우 치는 물결 위의 외딴 배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들은 7에 속한 8이며, 방주가 건너간 역사와 홍해 도하의 역사는 모두 그분의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그 영혼들은 요한계시록 11:11의 성취로 부활한 자들이다. 그들은 여덟째 날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징을 지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의해 대표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모든 선들은 동일한 기간을 나타내며, 그 기간은 9/11의 기초가 놓이는 때로 시작하여 일요일 법령에서 끝난다. 9/11은 기초석이고 일요일 법령은 완성석이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역사에서, 기초는 첫째 칙령의 역사 동안에 완성되었고 성전 자체는 셋째 칙령 훨씬 전에 완공되었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그 기초들은 1843년 도표가 출판된 1842년 5월에 확립되었다.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은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짓는 데 46년이 걸릴 것이었다. 1844년 10월 22일 이전에 밀러주의자들의 성전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 완성석은 한밤중의 외침이었다. 1844년 10월 22일에 한밤중의 외침이 끝났을 때, 기원전 457년의 알파, 곧 세 번째 칙령은 1844년의 오메가에서 그 상응물을 만났다. 2300년의 알파로서 기원전 457년이 있고, 오메가로서 1844년이 있다. 둘 다 한 수준에서는 동일한데, 칙령이든 천사이든 모두 기별이며 둘 다 일요일 법령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칙령이 있을 것이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부풀어 오른다.

기원전 457년부터 408년까지의 49년은, 다니엘에 의해 유대인들이 "어려운 때에도 거리가 다시 건설되고 성벽도 다시 세워질 것"을 완성하는 시기로 지목되었다.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때부터 메시아, 그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수두 이레가 있으리라. 거리와 성벽이 다시 세워지되, 환난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다니엘 9:25.

기원전 457년과 1844년은 2300년 예언의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와 오메가로서 동일하므로 둘 다 일요일 법령을 예표하며, 1844년의 실망은 영감에 의해 십자가의 실망과 대응된다. 1844년이 십자가를 예표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그 알파에 해당하는 것(기원전 457년)도 역시 그러하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는 셋째 천사의 시험 과정을 보여 준다. 그 시험 과정은 셋째 칙령, 곧 일요일 법령과, 환난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리와 성벽을 세우는 일이 마쳐지는 때 사이의 49년으로 나타난다.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전 408년까지의 기간은 2300년의 알파 역사로서,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오메가 역사를 예시한다. 이 두 역사들은 일요일 법령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이후부터 인류의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의 그들의 역사를 예시한다. 14만 4천의 사명은 남녀를 "옛 길"로 돌아오게 부르는 것이며, 이 길을 이사야는 오래 황폐된 곳들을 재건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예레미야는 늦은비 기별로 인도하는 길로 규정한다. "성벽"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며, 14만 4천은 그것을 온 세상 앞에 기치로 드러낼 것이다. 이는 이슬람의 셋째 화의 환난의 때에 일어날 것이니, 열방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이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과 환난의 때는 미가엘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므로 기원전 457년부터 기원전 408년까지가 셋째 칙령에서 시작된 예언적 기간이며, 그것이 1844년에 셋째 천사의 도래와 함께 시작되어 1863년에 끝난 예언적 기간을 예표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두 기간이 시작점 또는 종점으로 2300년 예언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둘을 서로에 대해 알파와 오메가로 규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느헤미야의 혼란의 시기는 내전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그 내전을 포함한 혼란의 시기를 예증한다. 알파 역사에서의 49년 기간은 오메가 역사에서의 19년 기간을 대표한다. 그 19년 기간은 또한 이사야의 65년 예언 시작 부분의 19년으로도 대표되었다.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그리고 육십오 년 안에 에브라임은 꺾여 더 이상 민족으로 남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이사야는 이 예언을 기원전 742년에 제시했으며, 19년 뒤인 기원전 723년에 북왕국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 생활은 2,520년 동안 계속되어 1798년에 끝났다. 기원전 742년부터 723년까지의 19년은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19년과 일치하며, 처음의 19년은 이 예언의 알파이고 마지막 19년은 오메가이다. 19년의 역사 속에서 악한 왕 아하스는 8절에 '일곱 때'의 메시지로 나타난 늦은비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이사야와 대면했다. 아하스는 그 메시지를 거부했으며, 1863년의 라오디게아적 밀러파 재림운동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 기간 동안, 아하스의 대제사장이 앗수르를 방문하여 그들의 이방 신전의 설계를 가져왔고, 아하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뜰에 건축하게 했다. 이 대목은 오던 길로 유다로 돌아가지 말아야 했으나 그렇게 하여 거짓되고 속이는 선지자에게 미혹된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야기와 상응하며, '일곱 때'에 대한 밀러주의자들의 이해로부터 숨기기 위해 배교한 개신교적 방법론으로 되돌아감을 나타내는데, 이는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의 전형적인 성취이다.

이 일은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의 내전이 막 시작되던 때에 벌어졌으며, 그래서 19년의 기간이 반복되었던 미국의 남북전쟁을 예표하였다. 기원전 742년부터 723년까지는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19년 기간을 나타내며, 이는 주일법에서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나타낸다. 9/11부터 주일법까지의 역사는 미국 내에서의 짐승의 우상 시험의 역사이며, 그 역사는 주일법에서 시작되는 세계적 짐승의 우상 시험으로 복제된다. 그러므로 주일법에서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를 나타내는 그 19년의 기간들은 또한 9/11부터 주일법까지의 역사, 곧 그분의 '기이한 일들'의 역사를 나타낸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지연되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속담으로 쓰지 못하리라. 대신 그들에게 말하라. '날이 가까웠고 모든 환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집 가운데 다시는 헛된 환상도 아첨하는 점술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지연되지 아니하리라. 반역하는 집아, 너희 시대에 내가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그가 보는 묵시는 오랜 날 후의 일이요,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의 어떤 말도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그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 12:21-28.